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와 일본 사회구조의 관계변화 연구

金 漢 洙*

(e-mail : simhoo9293@hanmail.net)

目 次

1. 머리말
 2. 行政主導에 의한 마치즈쿠리
 - 2.1 정부주도에 의한 도시계획
 - 2.2 마치즈쿠리 운동의 태동
 - 2.3 行政이 마치즈쿠리 운동 주도
 3. 住民主導에 의한 마치즈쿠리
 - 3.1 마치즈쿠리 운동의 전환점
 - 3.2 공동운영에 의한 마치즈쿠리
 4. 結論
-

1. 머리말

일본에서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¹⁾라는 단어는 일상적인 하나의 운동으로 자리매김 되어가고 있다. 가까이에서는 지역의 커뮤니티나 행정지원과 같은 것에서 국가 수준의 정책에 이르기까지 마치즈쿠리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 전북과학대학 관광계열 교수

- 1)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 : 한국에서는 ‘마을가꾸기’나 ‘마을만들기’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마치즈쿠리는 도시계획의 계획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이나 마을가꾸기의 모든 분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어휘의 의미는 街와 町라는 단어에 つくり가 합성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街づくり, 町づくり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정확하게 세분한다면 街는 하드웨어적인 이미지가 있고 町는 소프트웨어적인 이미지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여 사용한다. 이하 ‘마치즈쿠리’로 표기한다.

주지의 사실이다. 그 범위는 복지, 치안, 환경 보존, 교통 문제, 지역경제, 유통, 관광전략, 지역 커뮤니티, 건설 등 다양한 영역까지 확대되어가고 있다. 또 교육현장인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각 교육기관에 있어서도 마치즈쿠리와 관련해 활발하게 교육 및 실천을 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일본에서 활발하고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마치즈쿠리는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는 못하지만 집약해서 말한다면, 어느 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또는 그 양면으로부터 과제의 해결을 도모하려고 하는 프로세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마치즈쿠리지만 크게 3가지의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마치즈쿠리의 첫 번째 의미는 주민이 참가한 도시계획의 의미이며, 두 번째 의미로는 상점가꾸기(商店街づくり)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주로 거리가꾸기(街づくり)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상업자와 도시계획의 복합적인 중심시가지의 재개발 사업 등을 말한다. 그리고 세 번째의 의미는 마을부흥(むらおこし・まちおこし) 등의 지역 활성화라는 의미에서의 마치즈쿠리이다. 주로 대도시 인구 집중화로 과소화 현상이 일어나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매력을 높임으로서 인구증가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특히 마치즈쿠리의 대표적인 사례는 오이타켄(大分県)의一村一品運動²⁾이나 도시형 리조트의 제공³⁾ 등 지역경제가 열악한 지역에서 활성화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도시공간으로서의 하드웨어적인 ‘마치(街)’⁴⁾와 지역사회로서의 소프트웨어적인 ‘마치(町)’를 나타내는 마치즈쿠리를 분석하여 마치즈쿠리 운동에 대한 官主導의 과정에서 民主導로 실행되기까지의 관계변화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2. 行政主導에 의한 마치즈쿠리

2.1 정부주도에 의한 도시계획

일반적으로 마치즈쿠리라는 단어는 행정주도로 추진되는 도시계획에 대한 반발로 주민주도로 진행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

2) 오이타켄(大分県) 지사인 히라마츠 모리히코(平松 守彦)가 발안한 것으로 전국으로 23개 道府県에 확산되었던 운동.

3) 오이타켄(大分県) 유희인(湯布院)의 영화제나 음악제가 성공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4) 마치(まち)는 街, 町라는 한자로 나타낼 수 있다. 사전적 의미로 町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인 초(町)이며, 우리나라 톨 정도 크기의 행정구역명칭이다. 즉 집이 많이 군집하여 있는 도회지이다. 街는 보통 상가 따위의 밀집된 변화한 거리를 말한다. 본고에서는 이 두 한자의 의미를 공통으로 사용한다. 이하 마치로 표기한다.

래 도시계획이라는 말은 1919년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도시계획법이 만들어졌을 때에 공용어가 되고 일반화된 말이다. 도시계획이라는 단어는 그 이전부터 있었고 일본의 메이지(明治)정부가 도시 근대화를 위해 서양의 건축가들을 초청하여 서양적인 건물을 건축하는 가운데 도입되어 온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886년에는 도쿄(東京)의 중심을 독일의 베를린이나 프랑스의 파리와 같은 화려한 도시로 만들자고 하는 계획안이 입안되기도 했었다. 그런 토대 위에 1988년에 시행된 ‘東京市区 改正条例’를 가지고 일본의 근대도시계획이 탄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도시계획’ 이전 상응하는 용어는 市区改正이었지만, 그 사고방식은 일본의 서양화에 대한 대응 속에서 서양으로부터 도입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서양문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레벨향상을 위해 강력하게 국가계획을 추진했다. 원래 영국의 도시계획 등은 먼저 주민이 느끼고 있는 생활상의 불편이나 희망사항을 듣는 공청회를 가지고 거기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행정과 전문가가 계획의 초안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확인을 받아 최종적인 결정을 통해 법을 시행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서양과의 큰 격차를 줄여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중앙집권적으로 강력하게 이끌어가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内国勸業博覽會 등의 행사를 통해서 주민에 대한 계몽을 추진하는 행사유도정책을 전개하면서 아울러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을 추진해 갔다. 이러한 도시계획은 한국의 과거 박정희 정부에서 실시했던 ‘새마을 운동’의 전개과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戰後 일본은 다양한 가치관의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1945년부터 50년대 전반에 걸쳐 새로운 국가체제가 정비되었다. 당시 일어났던 시민운동으로서 노동운동·농민운동·문화운동·기업의 민주화운동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시민의 가치관의 전환, 민주화, 다양화를 배경으로 하여 시민과 마치즈쿠리를 분리하는 제도적 개혁이 단행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초나이카이(町内会)·부라쿠카이(部落会)’의 폐지와 지방자치법의 개정이다. ‘초나이카이(町内会)·부라쿠카이(部落会)’는 行政機關의 말단기관으로서 전쟁 중에는 국내통제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지만, 이 제도개혁에 의해 커뮤니티 레벨의 의식과 커뮤니티 레벨의 정치가 분리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초나이카이(町内会)’는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지역 자치의 중심으로 현재도 기능하고 있지만 그 역할은 상당히 한정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다.

지방 자치법의 시행·개정에 대해서는 1947년에 시행된 후 민주화와 지방분권을 기본적 방향으로 개정이 거듭되어 왔지만, 5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정책 전환에 의해 결국은 市町村의 합병⁵⁾이 촉진되는 것과 동시에 국가의 권한을 강화한 제6차 개정으로 이어졌다.

戰後 국가체제의 개혁은 시민 레벨의 새로운 가치관이 태어나면서도 시민과 마치즈쿠리가 나뉘지는 방향으로 나갔다. 일본의 마치즈쿠리는 국가의 체계화된 여러 시책하에서 관·행정주도로 추진되어 왔다. 국가·都道府県の 개입·관여(토지이용의 계획 등 포괄적인 지도감독권이나 국가로부터의 보조금·부담금에 의한 컨트롤)가 있었고 省庁·都道府県の 담당부서 조직의 종적구조로 되어 있어 주민에 가까운 지방공공단체에는 결정권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여러가지 제약 아래 개성을 살린 다양한 마치즈쿠리나 주민 그리고 주민에 가까운 지방공공단체의 의향을 반영한 마치즈쿠리를 만들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역주민이나 대표 등 마치즈쿠리의 리더십에 의한 지역주민의 참가·협력·협동으로 개성적인 경관이나 다양한 지역자원 등을 살린 개성 있는 마치즈쿠리를 실현해 왔던 경우도 극소수 있었다.

2.2 마치즈쿠리 운동의 태동

일본은 전후의 혼란기를 중앙집권적인 국가정책 및 도시계획에 의해 대응하면서 경제성장기에 돌입해 나갔다. 원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온 도시계획은 구체적으로는 도시계획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다. 도시계획법은 전부 합쳐서 97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는 긴 법률이지만 내용적으로는 ① 도시계획의 목적 ② 도시계획이라는 이름아래 실시되는 내용 ③ 도시계획을 정하는 수속 등으로 분류 되어 있다. 그리고 도시계획은 총괄도, 계획도 및 계획서에 따라 규정되어 이것을 알기 쉽게 나타낸 것이 도시계획도이다. 하지만 도시계획에 관한 이러한 정의는 ‘용도지역의 색칠이’라든가 ‘도로계획’이나 ‘구획정리’ 등의 경직된 기준으로 계획되는 딱딱한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살기 좋은 ‘마치’를 바라는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그와 같은 도시계획은 냉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러한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치즈쿠리라는 표현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마치즈쿠리라는 용어가 최초로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1952년에 당시의 히토즈바시(一橋)대학 교수이었던 마스다 시로(増田 四郎)교수가 월간지 『都市問題』에서 「都市自治의 한 가지 문제점(都市自治のひとつの問題点)」⁶⁾이라는 원고로 구니타치(国立)에서 전개되고 있던 운동에 관해서 언급했던 것이 최초라고 와타나베 준이치(渡辺俊一)는 지적하고 있다. 또한 주민운동으로서의 마치즈쿠리(街づくり)라는 단어가 실전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62년에 나고야시

5) 현재 일본에는 1,821 지역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1888년 明治 대합병 때 71,314개를 15,859 지역으로 통합하고, 다시 1953년의 昭和 대합병 때 3,472 지역으로 통합한 다음 마지막으로 平成 대합병 때 지금과 같이 통합했다.

6) 月刊『都市問題』1952년5월, 제43권, 제2호.

(名古屋市)의 사카에히가시(栄東)지구 도시재개발운동이었다고 말해진다. 그리고 마치즈쿠리가 행정의 문서에서는 1983년에 책정된 ‘교토시(京都市) 기본구상’에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⁷⁾

일본은 고도성장을 배경으로 개발위주 정책에 따른 반발이나 도시과밀, 교통, 공해 등 각종문제에 대한 시민운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시민 의식과 동떨어진 형태로 진행된 지역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계획이 시민의 쾌적성을 파괴 또는 위협하는 상황이 되어 시민들이 일어섰던 것이다. 또한 미시마시(三島市)의 석유화학산업단지 유치 반대운동이나 나카노쿠(中野区) 가미사기노리미야(上鷲宮)지구 재개발 반대운동 등 크고 작은 많은 운동이 전개되었다.

행정·기업이 제후한 개발 행위에 대해서 계획단계로부터의 시민참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公害라고 하는 형태로 사회문제화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해서 공해대책 기본법, 도시계획법 등이 정비되었지만 모두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계획법은 ‘국가가 실시하는 역할이다’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都道府県 및 市町村이 실시하는 도시계획에 관해서는 각 기관의 위임사항이라고 생각하여 필수과업이라는 고정관념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도시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가지는 도시계획이 시민으로부터 단절될 뿐만 아니라 市町村에서도 도시계획이 분리되는 형태로 제도화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일본은 개발위주의 정책에 대한 반대운동이나 거주환경에 위협을 받아 저항 운동으로서 마치즈쿠리운동이 태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주민운동이 각지의 공해반대운동과 연합하여 주민운동의 성장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전개된 ‘구획정리대책’의 노력에 의해 주민을 주체로 하여 주민 생활상의 가치관에 근거한 마치즈쿠리가 주장·전개하게 되었다.⁸⁾ 마치즈쿠리는 도시계획에 주민참가를 유도하려는 행정으로부터의 접근이 대부분이었다. 마치즈쿠리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은 마치즈쿠리에 대한 주도권은 행정측에 있으면서도 그 계획에 주민참가가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점이다. 특히 큰 계기가 된 것은 자치성이 실시한 시범 커뮤니티 사업이며 커뮤니티의 형성을 목표로 행정계획에 대해서 주민이 참가하는 방법이 모색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고베(神戸市) 마루야마(丸山)지구의 시범 커뮤니티를 비롯하여 커뮤니티 센터 등 지역의 사회간접자본의 운용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활동 그리고 마치즈쿠리위

7) 교토시기본구상(京都市基本構想)(京都市Grand Vision), <http://web.kyoto.inet.or.jp/people/my10s4/firstcityplan.htm> 교토시(京都市)기본구상의 전신인 교토시(京都市) 종합계획 시안은 1963년에 완성.

8) NPO·특정비영리활동법인 ‘구획정리·재개발대책 전국연락회의’(1968년 설립)에 의하면, 현재까지 일본 전국에서 1400군데의 구획정리와 120군데의 재개발이 진행되어 왔지만 그 대부분은 주민무시·주민희생으로 추진되어 왔다. 참고: <http://homepage3.nifty.com/kukakurenrakukaigi/>

원회나 마치즈쿠리협의회 등의 시민참가의 조직화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2.3 行政이 마치즈쿠리 운동 주도

마치즈쿠리가 행정에 대항할 수 있는 기능은 주민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종합연구소, 도시계획의 전문가 등 여러 조직들이 일시적이 아닌 상설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져 갔다. 이 때 활동자금으로 ‘마치즈쿠리 공익신탁’ 등의 시스템도 시도하게 되었다. 마치즈쿠리는 직면한 과제에 대한 개선 운동의 필요성에 의해 지역고유의 창조적 요소를 가미 하면서 다양한 테마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지역복지마치즈쿠리, 환경마치즈쿠리 등 지역 속에서 실천적인 방법이 고안되고 법제도적으로도 지탱된 시범적 노력에 의해 마치즈쿠리의 성공사례가 방법적인 측면으로부터 축적되었던 것이다.

또 하나 마치즈쿠리의 큰 특징은 ‘마치나미(町並み)⁹⁾보존운동’의 시작과 활성화였다. 원래 마치나미(町並み)는 지역의 고유성의 상징이며 지역 문화, 역사, 풍토가 종합화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마치나미(まちなみ)를 보존·재생하는 것을 통해서 커뮤니티의 재생을 도모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마치나미(まちなみ)보존운동이다. 마치나미(まちなみ)보존운동은 기후켄(岐阜県)의 다카야마(高山)나 나가노켄(長野県)의 츠마고메(妻籠)를 발단으로 일본 전국에 퍼졌다. 이러한 운동을 토대로 ‘주민현장’이나 ‘주민협정’이라고 하는 도시계획법 등에 기초를 두지 않는 임의의 협정에 의한 마치즈쿠리방법이나 市町村에 의한 条例에서, 계획적인 형태의 마치즈쿠리 조례 및 건축협정 등의 일정한 제도적 강제력을 가지는 새로운 방법이 개발되었다. 또한 마치나미(まちなみ)보존운동에는 지방중소도시가 모두 작은 도쿄(東京)을 지향하고 도시계획이 추진되어 가던 것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제2차세계대전 후 1955년경까지 계속되었던 戰災復興計劃에 의해 도시의 위생(건강성)과 방재성·방화성(안전성)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되었고, 그 후 지속된 고도성장기에서도 산업의 진흥은 정부의 도시계획의 중심적 과제였다. 그 결과 도시계획에 가장 중요시된 내용은 ‘편리함’이었고, 급격한 도시화로 이어졌다. 급속한 도시화에 대한 대응은 너무 서둘러 추진했기 때문에 효율화에만 편중한 나머지 획일화나 표준화를 초래하여 각 도시의 개성이나 매력이 상실되는 방향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이다.

많은 인구유입에 의한 도시화는 편리성의 제공 대신에 커뮤니티의 혼란과 소외를 초래했고 주민은 그 속에서 개인과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찾기 시작했

9) 마치나미(町並み): 거리에 상점이나 집이 즐비하게 늘어진 곳.

던 것이다. 도시계획이나 마치즈쿠리의 단계로, 첫째 도시의 위생(건강성)과 방재성·방화성(안전성), 둘째 도시의 편리성과 쾌적성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셋째 개성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요구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요시다 타미오(吉田 民生)¹⁰⁾의 『흔들리는 도시(揺らぎの都市)』에서 도시화 및 高度 도시화 단계의 기본적 특징의 비교로서 다음과 같이 도시의 발전 단계의 차이를 정리하고 있다.

표 1. 도시화 및 高度 도시화 단계의 기본적 특징 비교

구분		도시화 단계	高度 도시화 단계
01	가치 지향	물질적·경제적 풍요로움	정신적·문화적 풍요로움
02	생활 욕구	균질·표준화	개성·차별화
03	생활 행동	수동적·평균적 행동	능동적·주체적 선택 행동
04	생활 스타일	공생활 중시형	사생활 중시형
05	생활 거점	단속형	복속형
06	생활 시스템	공동처리 시스템 의존형	전문처리 시스템 의존형
07	지역 사회 스타일	동질형(균일한 조직)	이질적(다양한 개인)
08	라이프 디자인	인생 50년형	인생 80년형
09	도시 디자인	젊은이 중심(경제성·기능성)	노인, 어린이, 장애인도 포함한 (多階層型)(快適性)
10	직업 디자인	직업 중심	인간 중심
11	서비스 생산 스타일	생산자·공급자 우위	소비자·수요자 우위
12	서비스 생산 시스템	대량생산(규모의 이익)	다품종소량생산(다양성의 이익)
13	지역 경제 스타일	하드 산업화	소프트 산업화
14	지역 진흥 스타일	外発型	内発型
15	정보화 스타일	거점적 정보화	산업, 사회, 가정의 정보화 (online 중심)
16	정보 통신 관계	도쿄(東京)발신·지방 수신형	지역상호 수·발신형
17	지역간 관계	경쟁·단독형(Standalone)	경쟁·협조형(Network화)
18	자원 이용 스타일	多소비성(無限性)	복합이용(有限性)

10) 요시다 타미오(吉田 民生), 『揺らぎの都市』, ぎょうせい, 1989, p.184.

19	자원 배분 스타일	산업중시형	생활중시형
20	도시 기능	대도시권 집중형	중추·중핵도시 집적형
21	정부간 관계	集權型	分權型
22	사회 스타일	세로형·계층형	가로형·네트워크형
23	지방 정부 스타일	큰 정부	적정규모의 효율적인 정부
24	정치 스타일	대표 민주제	참가 민주주의
25	자치 스타일	고정적 분업관계	유동적 협업관계

일본은 전후 대도시의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고도경제선진국으로 접어들면서 생활환경은 더욱 악화되었다. 세계 경제대국으로 진입했지만, 대규모 난개발에 의한 주거와 생활환경 악화 그리고 심각한 공해문제로 생활환경이 위태로워진 것처럼 변화하게 되었다. 즉 하드웨어적인 측면만 고려한 산업화로 인간의 삶이 악화되면서 새로운 탈출구를 찾는 일환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찾게 되었고 이런 요인이 마치즈쿠리의 가치의식에도 변화되어 행정에 대응해 나갔던 것이다.

행정측의 대응을 보면 고도성장기에 일어난 도시문제에 대한 반성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조금씩 지역의 매력이나 환경의 질을 고려하는 사업이나 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쾌적성’이라는 생각을 마치즈쿠리에도 도입하는 것에 노력하는 것과 아울러 그 定量的인 평가방법의 연구를 추진했다. 그 결과 ‘쾌적성’은 자연이나 공기·물의 깨끗함, 조용함, 자연환경의 친화성 등에 의해 구성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당시 일본인들이 생각한 ‘쾌적한 환경’은 공해행정이나 자연보호행정의 틀 안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쾌적성(Amenity)의 개념에는 포함되었지만 사람들의 활력이 넘치는 삶이라는 관점을 포함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즉 현실의 마치에 사는 사람들의 쾌적함의 실감과는 괴리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지역의 곳곳에는 지역주민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에 회의를 느껴 의회나 행정을 설득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실현되어도 주체가 과거처럼 행정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은 멀어졌다. 결국 도시계획 마치즈쿠리 성과는 널리 보급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또한 도시 개성의 상실이나 커뮤니티 붕괴 등의 문제는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부터는 시대적 흐름이 지역개발보다는 주민참여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행정이 인재육성을 요구하게 되어 주민이 주체가 된 마치즈쿠리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3. 住民主導에 의한 마치즈쿠리

3.1 마치즈쿠리 운동의 전환점

마치즈쿠리 운동의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행정에 의한 마치즈쿠리가 아닌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시기를 말한다. 즉 이전의 행정주도형의 시민참가·주민참가라는 단계에서 시민주체로 활동하는 마치즈쿠리운동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과도한 경제개발로 인한 거품경제붕괴와 그것에 이어지는 디플레이션(Deflation)현상이 일어났다. 개발중심의 도시계획은 자동차 산업의 발달과 아울러 교외의 대형쇼핑센터, 아파트 단지, 시의 행정기관이나 대형병원 등의 교외이전을 초래했다. 신도시의 확대로 구도시 중심지역의 밀도 저하와 재래시장(중심시가지)의 낙후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를 요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행정의 재정을 압박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거품경제붕괴로 행정의 재정은 극도로 악화되어 갔다.

결국 중앙정부에서도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국토에 관한 여러 정책의 체계인 ‘국토총합개발계획’ ‘국토이용계획’ 아래서는 지역진흥이나 도시에 관한 각종 계획이 개별 규제법에 따라 책정되고, 전국에서 소도시 지역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국토계획에 의한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이것은 국가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표로 하여 국가주도로 도시 정비나 過少·離島·山村의 지역진흥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8년의 제5차의 전국총합개발계획 ‘21세기의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일21世紀の国土のグランドデザイン)’¹¹⁾에서는 기본목표로 ‘다축형 국토구조 형성의 기초 만들기’를 내걸고 지역스스로의 선택과 책임에 따라 실시되는 지역 만들기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주목할 것은 ‘국가와 지방의 협력에 의한 비전 작성’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정책은 국가주도로 지방의 의견을 청취하는 구조를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전국총합개발계획’으로부터 국가에 의한 전국계획과 국가와 都道府県 등으로 연대·협력하여 책정하는 광역지방계획을 의미하는 ‘국토형성계획’으로 전환하여 계획에 대한 다양한 주체(지방공공단체, 주민)를 참여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지방공공단체의 주체적인 노력을 존중하면서 국가가 본래 다해야 할 역할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다하는 새로운 국토조성의 전환이 시작됐던 것이다.

11) 일본의 国土総合開発法(현재는 국토형성계획법)에 근거한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제5차 국토총합 개발 계획이다. 1998년 3월 31일 내각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명칭을 ‘제5차 전국총합개발계획’이나 ‘5전총’ 등 과거의 명칭과 같은 방식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국가가 주도하는 개발 중심의 국토 계획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국토총합개발법이 국토형성계획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국토 계획 행정이 전환하는 흐름의 효시가 되었다. 부제로는 ‘지역의 자립의 촉진과 아름다운 국토의 창조’를 채택하였다.

큰 전환기가 된 또 하나의 계기는 일본에서 NPO¹²⁾라고 하는 개념이 정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예전에는 행정과 기업 중 어느 쪽도 아닌 시민조직은, 자금력이나 기술력, 활동의 계속성 등이 미약하여 마치즈쿠리에 대한 주체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주류였다. 그러나 그러한 고정관념이 70~80년대에 일어난 시민참가의 성공에 의해 조금씩 변화되었고 또한 외국의 NPO단체의 영향 등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층 더 마치즈쿠리 운동의 네트워크화가 그 움직임에 박차를 가했고 서로의 정보·노하우 교환이나 인재 교류에 의해 독립한 활동 주체로서의 지위를 확립해 나갔던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상징하고 있는 활동이 ‘세타가타(世田谷)마치즈쿠리센터’나 그랜드 워크(Grand work)¹³⁾의 일본에서의 전개, 또 시가켄(滋賀縣) 나가하마(長浜)에서의 ‘마치즈쿠리회사 쿠로카베(黒壁)’이며 마치즈쿠리에 대해 독립적 주체적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그랜드 워크 발상지인 영국과의 네트워크 및 일본에서의 각 활동의 네트워크를 살려, 활동 노하우나 자금, 인재 등의 면에서 서포트하는 체제를 쌓아갔다. 또 네트워크의 관점에서는 일본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NPO 네트워크가 향후 더욱 중요성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다양한 조직이 네트워크 하고 있기 때문에 타업종 교류와 같이 새로운 활동이 태어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마치즈쿠리 활동과 환경보호 활동, 교육 활동, 문화 활동 등 필요에 따라 제휴하여 그때그때의 테마로 만들어 가는 네트워크인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는 새로운 활동의 창조뿐만 아니라 노하우나 자금 등에서 각 활동 조직의 서포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 활동으로서의 활동의 계속성도 높아진다.

3.2 공동운영에 의한 마치즈쿠리

12) NPO(Non profit Organization 혹은 Not-for profit Organization의 약칭): 特定非営利活動法人, 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에 따라 특정비영리활동을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동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004년 15000개를 넘는 NPO법인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중 3분의 1은 마치즈쿠리에 관한 NPO단체이다.

13) 그랜드 워크(Groundwork): 새로운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지역으로부터의 실천행동을 의미하며, 지역을 구성하는 주민 행정 기업의 3자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자연환경이나 지역사회를 정비·개선해 나가는 활동. 1980년대 초에 영국의 농촌사회의 쇠퇴를 배경으로 環境省에 의해 설립된 조직이며, 주민·기업·행정이 파트너십을 갖고 지역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경제 및 사회의 재생을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 목적 아래 각 지역에 실천단체(grandwork trust)가 설립되어, 전문성을 갖춘 스태프와 함께 지역의 재생과 활성화를 향해 파트너십 형의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기타 National trust(국가유산을 대상)이나 civic trust(지역유산을 대상)이 있지만, 대부분 역사적 유산이나 아름다운 환경이 주된 대상이며, Groundwork는 악화된 환경의 복구, 개선, 재생이 활동의 중심. 일본에서는 1990년대에 시즈오카켄(靜岡縣) 미시마시(三島市)나 시가켄(滋賀縣) 고라쵸(甲良町), 후쿠오카켄(福岡縣) 후쿠오카시(福岡市)등에서 주민의 봉사활동으로써 영국을 모방한 파트너십 형으로 지역환경개선활동이 시작되었다. www.groundwork.or.jp

현재 ‘마치’에 사는 사람들을 둘러싸는 사회상황은 경제의 정체, 인구의 감소·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진전, 핵가족화 및 종래의 지역사회 붕괴, 정보화 사회의 진전, 중대범죄의 증가, 지구규모의 환경문제 등 복잡하고 다양화되어 있고, 마치즈쿠리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고 긴급한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의 행정조사결과¹⁴⁾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이 감각적으로 소중하다고 보고 있는 관점은 고도성장에 따른 도시의 발전시 도입하려고 노력해 왔던 여러 문제 이외에 ‘쾌적환경’도입시 검토되지 않았던 ‘사람의 활력·개성’에 대한 관점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대도시의 경제자원이나 인적자원의 집중적인 가속에 의한 지방도시의 쇠퇴나 도시구조의 변화에 의한 시가지 중심부의 空洞化가 진행되는 측면도 있어서, ‘마치’ 그 자체의 ‘활력·개성¹⁵⁾’에 대해서도 관심에 넣어야 할 것이다. 즉 지금까지 마치즈쿠리에 있어서 간과되었던 ‘사람이나 마치의 활력·개성’의 관점을 담은 토대위에서 ‘쾌적한 마치란 어떠한 마치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마치즈쿠리를 실행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오사카(大阪)대학의 사와키 마사노리(沢木 昌典)교수는 마치즈쿠리에 대해서 지역에서 주민에 의한 자율적(자립적)이며 계속적인 환경개선(문리적 및 사회적 환경도 포함)에 관한 운동¹⁶⁾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왜 ‘주민’이 주체인가. 그것은 마치즈쿠리(마치가 좋아지는 것)의 성과에 대한 가장 큰 수익자(수익자)는 주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왜 ‘자율적’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마치즈쿠리는 취미나 사리사욕(에고)에 의한 것이 아니고(=자기책임이 있음) 지역의 공익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며, 이것을 위해 스스로의 손으로 지역의 공익을 향해 문제해결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조직으로서 자율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면 행정과 대등한 대화나 협동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본 중앙정부는 앞서서도 밝혔지만 제5차 전국총합개발계획이 ‘21세기의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을 작성하여 도시계획의 방향을 크게 전환시켰는데 기본이념에 다음 5가지의 지방재생원칙을 세우고 있다¹⁷⁾.

① 보완성의 원칙: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 NPO,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지방공공단체와의 연대 아래서 입안된 실현성이 높은 효과적인 계획

14) 『平成18年度環境影響評価技術手法調査業務 報告書』, 環境省, 2007. 3.

15) 『「地域づくりに対する期待度に関する調査」結果』, 国土交通省, 2007. 특히 중요하다고 기대되고 있는 분야로서 안전, 삶, 활력, 환경의 4가지 분야를 설정하여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중 “활력”에 관한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도시/지역의 재생, 역사나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 만들기, 지역산업의 활성화, 매력적인 경관형성, 선진적인 지역 만들기에 대한 지원 등이 열거되어 있다.

16) <http://www.city.sakai.osaka.jp/naka/tayori041030.html>

17) 『地方再生戦略』, 地域活性化統合本部会合, 2008. 1. 改定

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한다.

② 자립의 원칙: 지역의 자원이나 지혜를 살려서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자립을 향해 노력하는 계획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③ 공생의 원칙: 지방과 도시가 사람·물건·돈의 교류 및 연대를 통해서 서로 도와주고 공생을 지향하는 조직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④ 종합성의 원칙: 중앙정부의 지원은 관계 부서의 벽을 배제하여 지역의 창의에 따른 계획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⑤ 투명성의 원칙: 지원의 대상이 되는 계획의 책정 지원의 계속 및 계획종료시 평가에 대해서는 제3자의 평가를 넣어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실시한다.

이와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는 TMO¹⁸⁾에 의한 중심시가지활성화를 위한 제도¹⁹⁾ 등을 마련했다. 인구 과소화로 중심시가지 空洞化 현상으로 중심시가지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과 민간사업자가 협력하여 ‘마치즈쿠리주식회사’ 등 제3의 운영조직을 출범시켜 스스로가 만든 발전계획(TMO구상, 중소소매상업, 고도화, 사업구상 등)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 채용되면 관할관청의 부서를 넘어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다. TMO는 구체적으로는 영업관리업무나 판매촉진업무 그리고 상가의 도로포장과 시설정비사업을 포함한 환경관리업무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주목할 내용으로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이 이뤄지지만 그 중에 ‘상가 활성화 조연자 파견사업’ ‘중심시가지 활성화 타운매니저 파견사업’ ‘타운매니저 양성연수’ 등의 지원이 있다. 이 지원책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행정 및 민간에서의 마치즈쿠리운동을 조사해 보면 성공하고 있는 지역에는 마치즈쿠리운동을 이끌어갔던 리더가 큰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치즈쿠리의 분야는 市町村 행정의 권한위양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조직이나 단체이다. 오늘날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마치즈쿠리의 행정분야에서도 지방분권이 촉진되어 분권형 행정시스템을 통한 지역주민 및 지방공공단체의 자기결정·자기책임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 행정의 통폐합으

18) TMO: Town Management Organization, 상가의 조합, 행정, 마치즈쿠리회사, 기타 중심시가지에 관한 여러 가지 조직이 조정의 장이 되어, 중심시가지의 활성화, 유지를 위한 활동을 마치즈쿠리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하고, 그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 필요에 따라서 TMO자체도 사업을 실시하는 주체가 된다. 영국과 미국에서 보급되고 있으며, 비영리법인인 CDC(지역개발회사) 등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TMO의 지원조직으로서 타운센터·매니지먼트협회(ATCM, 영국), 국제타운협회(IDA, 미국) 등을 비롯한 NPO 등이 있고, 계속적·조직적인 운동이 추진되고 있다.

19) 마치즈쿠리 三法(中心市街地活性化法, 大規模小売店舗立地法, 都市計画法) 1998년 제정.

로 인한 국가 조직은 이미 대폭적인 감축을 시작했다. 지역주민과 주민에 가까운 지방공공단체가 자율적인(자기결정·자기책임) 마치즈쿠리를 실시해 나가는 시대이다. 주민과 다양한 주체(행정, 민간사업자 등)의 협동으로 여러 가지 개성적인 지역자원이나 경관을 살린 지역의 매력을 재발견하고 또한 새롭게 창출해서 지역간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마치즈쿠리에 성공하면 지역은 활성화하고 지속가능성이 높지만 한편 노력이 늦어지면 재생 불가능한 지역이 출현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일본의 마치즈쿠리운동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농촌형 지역사회에서 탈피하여 도시형 지역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새로운 도시형 세계로의 변혁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분권형 지방의 시대(행정주도형)에서 자립형 지역의 시대(시민주도형)로의 전환의 추세라고 볼수 있다. 이러한 마치즈쿠리운동이 전환기를 맞이한 배경에 대해서 모리 타케오(森 巖夫)나 마츠노 히로시(松野 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²⁰⁾

① 도시화: 지방도시에서 종래의 인구적 요소, 특히 젊은층의 도시로의 유출에 의한 도시화(양적 도시화)에서 지방도시 사회의 사회구조·생활구조 자체가 도시화(질적 도시화)로 변화하고, 지역사회의 문화·라이프 스타일이 도시적 세계로 접근하게 되었다.

② 산업화: 산업기반의 충실·산업구조의 고도화(기술혁신에 의한 산업기술의 고도화)에 의한 경제적 풍요로움이 실현되었다.

③ 정보화: 지역사회내·지역사회간의 정보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각종 정보의 교류기회가 실현되었다.

④ 과학화: 과학기술·정보기술의 진전에 의해 지역과 지역의 벽이 없어지고, 지역간 교류·지역간 네트워크가 추진되고 여러 지역의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⑤ 고학력화: 대학 진학자수의 증가에 의해 고도의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졌다.

⑥ 고령화: 지방도시 중에서도 농촌지역의 고령자가 증가하고 지역의 인구 구성에 불균형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산업구조·생활구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변화의 배경요인은 오늘날 마치즈쿠리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통적인 과제로서 설정되어 있는 것과 동시에 과제 대응을 통해서 마치즈쿠리운동의 질적 기반이 전환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즉 권리를 우선시하는 요구형인

20) (社)日本青年會議所 監修, 『講座 まちづくり開発入門』, ぎょうせい, 1992. pp.36-36.

‘주민운동’에서 권리·의무 이행을 함께하는 참가형인 ‘시민운동’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민간기업과 경영은 불가분한 관계이지만, 오늘날에는 비영리조직에도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비영리조직도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일반 민간기업에 가까워지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도 대학의 파탄이나 NPO의 해산 등이 늘고 있다. 지금까지 경영기법이나 기업회계 등의 민간기업경영(매니지먼트)과는 거리가 멀었던 비영리조직·비영리부분에서도 경영이 우수하지 않으면 조직의 목표 실현이 곤란하다는 견해가 형성되어 왔다. 그래서 비영리조직·비영리부분에서도 경영(매니지먼트)을 통한 효율성에 역점을 두게 되었다. 결국 지역도 마찬가지로 경영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지역경영론을 전공하는 도모나리 신이치(友成 真一)는 경영을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적달성을 극대화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위에서 말한 官, 学, 地域은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이제 행정과 학교, 기업, 지역주민이 하나가 되어 상생하지 않으면 지역 활성화는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결국 마치즈쿠리는 사람(인재) 만들기라는 말도 있듯이 외부에서의 지원이 아니고 필요성을 인식한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활동에 따라서 마치즈쿠리의 성공 여부는 결정된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 중앙정부의 출장소적인 성격을 띠고 있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성격을 강하게 갖게 되었고, 지역주민도 행정에게 일방적으로 맡겨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지역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는 시대가 되었다. 지금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의 여러 단체가 개별의 테마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역에 존재하면서 서로 연대하여 특유의 구성단체를 형성해서 전체로서 다양한 과제를 대상으로 ‘지역운영’을 해 나가는 공동운영의 단계라고 볼 수 있다.

4. 結論

마치즈쿠리 운동의 분야는 市町村이나 행정이 주민에게 권한을 넘겨줘야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다. 본고에서 고찰해본 것과 같이 과거 행정주도로 마치즈쿠리를 실시하면 지속적이지 못하며 일회성에 그치고 환경문제 공해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후 일본의 마치즈쿠리는 국가의 체계화된 여러 시책 아래서 官·행정주도로 추진되어 왔다. 그래서 국가·都道府県の 과도한 개입과 관여로 省庁·都道府県の 담당부서 조직이 종적구조로 되어 있고 주민에 가까운 지방공공단체는 결정권이 거의 없어 개성을 살린 다양한 마치즈쿠리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주민이 주도한 마치즈쿠리는 행정 주도하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주민의 책임도 커졌다. 즉 오늘날 중앙정부는 지방정책을 수립할 때 지방분권추진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마치즈쿠리의 행정분야에서도 지방분권이 촉진되어 분권형 행정 시스템을 통한 지역 주민 및 지방공공단체의 자기결정·자기책임이 기본이 되게 되었다. 결국 중앙정부의 행정 주도로 추진된 도시계획에서 벗어나, 이제는 정부와 주민의 관계가 관리, 대립, 의존의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입장에서 지역에 대한 마치즈쿠리를 함께 계획하여 운영해 나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마치즈쿠리 운동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마치즈쿠리가 사람에 의해 성공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과거처럼 官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필요성을 인식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에 따라 官과 民이 협력해야 치즈쿠리운동이 성공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마치즈쿠리 운동의 현재는 지역주민과 주민에 가까운 지방공공단체가 자율적인 마치즈쿠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 행정에서는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지역 지도자와 같이 협의하며 만들어 가고 주민과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으로 여러 가지 개성적인 지역자원이나 경관을 살린 지역의 매력을 재발견하고 또한 새롭게 창출해서 지역간 경쟁을 촉진하는 단계에 왔다고 볼 수 있다.

【参考文献】

- ・ 延藤安弘(2001), 『「まち育て」を育む』, 東京大学出版会.
- ・ 佐藤 滋 編(1999.), 『まちづくりの科学』, 鹿島出版会.
- ・ 山崎丈夫(2000), 『まちづくり政策論入門』, 自治体研究社.
- ・ 環境省(2007.3.), 『平成18年度環境影響評価技術手法調査業務報告書』.
- ・ 吉野正治(1997), 『市民のためのまちづくり入門』, 学芸出版.
- ・ 延藤安弘(2001), 『「まち育て」を育む』, 東京大学出版会.
- ・ 佐藤 滋 編(1999), 『まちづくりの科学』, 鹿島出版会.
- ・ 森田三郎(1990), 『祭りの文化人類学』, 世界思想社.
- ・ 吉野正治(1997), 『市民のためのまちづくり入門』, 学芸出版.
- ・ 吉田民雄(2005), 『都市行政の新しい設計』, 中央経済社,
- ・ 野正治(1995), 『市民のためのまちづくり入門』, 学芸出版社.
- ・ 国土交通省(2007), 『「地域づくりに対する期待度に関する調査」結果』.
- ・ 日本建築学会編(2004), 『まちづくり教科書 第1巻 まちづくりの方法』, 丸善.

要 旨

本稿では都市空間としてのハードウェア的な‘街’と、地域社会としてのソフトウェア的な‘町’をあらわすまちづくりを分析し、まちづくりに対する行政と住民との関係がどのように変化してきたから考察してみた。

日本は戦後の政府により推進された都市計画では、環境問題は全く考慮されることがなく開発中心の政策を施行されてきた。その結果、開発中心の政策に対して住民は反対運動や居住環境が脅威にさらされていることに対する抵抗運動としてまちづくり運動は誕生することとなった。その後、このような住民運動が各地の公害反対運動などとも連携し、住民運動の成長期を向かえることとなった。

行政主導による急速な開発は都市の個性の喪失やコミュニティーの崩壊などの問題はそのまま放置されることとなった。しかしながら社会の流れが地域開発よりも住民参加を要求するようになり、行政は人材育成の側面から支援を行いつつ住民が主体となるまちづくり運動へと発展することとなった。

結局、日本のまちづくり運動は社会構造の変化にともない伝統的な農村型地域社会を脱皮し、都市型地域社会へと変化をおこし、更には新しい都市型世界のまちづくりの変革を求めている。そして分権型の地方の時代(行政主導型)から自立型の地域の時代(市民主導型)へと転換をなしつつある。また、行政では地域の人材を育成するプログラムを地域の指導者たちと協議を行いつつ進めるなど、多様な主体との協力により様々な個性的な地域資源や景観を生かした地域の魅力を再開発し、または新しく創出することにより、地域間の競争を促進する段階へと本格的に入ってきたのである。

キーワード；まちづくり, まち, 都市計画, 町並み, NPO, TMO, 地域コミュニティー

투 고 : 2008. 8. 31
1차 심사 : 2008. 9. 12
2차 심사 : 2008. 9. 27